

한화, 오스탈 지분 확대 FIRB 승인 획득

'25.12.17(수), 멜버른무역관

□ 개요

-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(FIRB) 권고를 수용해 한화의 오스탈(Austal) 지분을 기존 9.9%에서 19.9%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함. 다만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와 주권 이익 보호를 위해 지분 상한 유지 및 정보 접근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

□ 상세내용

- 한화의 오스탈 지분 확대 승인
 - 2025년 3월, 한화는 오스탈 지분의 9.9% 추가 매입을 제안하며, 전략적 주주로서의 참여 확대를 공식 제안
 - * 앞서 한화는 오스탈 인수를 두 차례 시도했으며, 호주 해군의 다목적 호위함(GPF) 사업 입찰에 실패한 바 있음
 - 2025년 12월, 호주 정부는 한화의 오스탈 지분을 9.9%에서 19.9%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FIRB 권고에 따라 승인
 - * 19.9%를 초과한 추가 지분 확대는 불허되어 소수주주 지위 유지
- 호주 정부의 승인 배경
 - 국방부, 내무부, 외교부, 국가 안보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,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
 - 민감한 국방·조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보관을 제한하고, 한화 추천 이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적용

□ 무역관 의견

- 이번 승인 사례는 호주가 국가 안보를 엄격히 관리하지만, 조건부로는 해외 방산기업의 전략적 참여를 허용한다는 신호로 해석됨
- 한국의 방산기업의 단순 수출을 넘어 지분 참여, 현지 투자, 장기 파트너십 형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, 향후 한국 기업의 호주 방산 생태계 참여 확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
- 호주 정부가 전략적 조선 및 방산기업에 대한 완전 인수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, 기술 협력이나 공동 생산, 공급망 참여 중심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판단됨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* 2025년 12월 12일, Australia Defence Magazine (<https://www.australiandefence.com.au/news/news/hanwha-to-increase-austal-share>)